



남원 여성단체협의회, 지구의 날 기념 거리 캠페인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2일, 도봉동 일원에서 지구의 날 기념 환경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탄소중립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앞장서 추진하였으며, 회원들을 비롯해 남원시 환경과 여성가족과, 도봉동에서 함께 참석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에 뜻을 같이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길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와 탄소중립 생활실천 수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 거리 캠페인은 올해 세 번째로 '재활용은 새활용'이라는 모토로 캠페인에 사용되는 피켓과 현수막 등을 모두 재활용 일상 속 저탄소 생활 실천을 몸소 실천했다. 인영희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뜻깊은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라며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장학금 기탁 릴레이 "우리 함께 키워요"

자연별墅시 무주민들의 해를 맞아 지난 20일 무주지역을 찾았던 부천시 전북특별자치도 단체연합회 회원들이 무주군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부천시 전북특별자치도 단체연합회 김종택 회장은 "몸은 멀리 타향에 있지만 회원들의 마음은 모두 고향 전북자치도를 향하고 있다"라며 "고향 사랑의 일환으로 무주를 찾아 아낌없이 베풀어 줄 명소들도 보고 뜻깊은 일에도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정책과장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7회 진안군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진안군노인회(회장 구동수)는 22일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에서 개최한 제17회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대회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2023년 우승팀인 진안읍 분회팀이 우승기를 반납하고 진안군 관내 16개팀 140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한껏 발휘했다.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과격하지 않으며 공을 치고 쫓고 걷는 신체활동을 통해 무노년층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구동수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꿈꾸는 동화나라 연구소 협동조합 자원봉사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19일, 한국 장애인지원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이하 주간활동센터)가 꿈꾸는 동화나라 연구소 협동조합(회장 김일순 이하 꿈·꾸·연) 회원 5명이 주간활동센터 이용자 10여명과 함께 책놀이를 통한 인지향상교육 봉사활동에 나섰다. 꿈·꾸·연은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됐으며 지난 3월 공모를 진행해 5개의 봉사단체가 선정됐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활동 예정이다.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는 "일년 간 발달장애인과 함께 인형극 무대를 연습해 공연을 진행하려 한다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

“자랑스럽게는 살지 못할망정 부끄럽게는 살지말자”

산민 한승헌 변호사 2주기 추모식&사진전 진안 문화의 집서 열려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위원장을 지낸 진안 출신 산민 한승헌 변호사 2주기 추모식&사진전이 지난 19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성대히 열렸다. 산민 한승헌 선생 기념회(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와 진안군애향본부(본부장 우태만)가 준비한 이날 행사는 윤석정 회장과 우태만 본부장을 비롯한 한승헌 변호사 부인 김송자(90) 여사와 아들 한규면·한규우 교수, 안호영 국회의원,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주 진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또한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시국사건 변호 받음), 황숙주 전 순창군수(한승헌 감사위원 때 감사원 직원), 마이산 탐사 주지 진성 스님,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김학수 전북변호사협회장,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배정기 전 진안군애향본부장(대학동기), 한필수 청주한씨진안군종친회장 우덕희 진안문화회장, 재전향우회와 진안지역 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우리나라 인권변호사 1호로 알려진 인물로 진안군 안전면 노성리 보한마을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사법고시 합격자 1호이다. 그는 독재시대에 시국사건을 자발적으로 변호하며 인권회복에 평생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태만 본부장은 환영사에서 "한승헌 선생님의 자랑스럽게는 살지 못할망정 부끄럽게는 살지 말자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셨다"고 말했다. 윤석정 회장은 "한승헌 선생이 뿌린 인권의 씨앗은 고향 진안과 전북, 대한민국을 넘어 밤하늘의 길잡이인 북극성처럼 인권의 발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고 기념사에서 밝혔다. 안호영 국회의원도 추모사에서 "한승헌 선생의 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인권을 세운 변론은 역사의 재판에

서 승리로 남아 영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추모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특히, 소외받는 자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선생님을 오래도록 추모해야"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추모사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편만한 길을 버리고 법치주의를 위해 독재와 맞서 싸운 산민선생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던 산민의 말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김민주 도지사과 서거석 교육감은 영상을 통해 산민 한승헌 선생을 추모했다.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은 "내가 1974년 유신헌법 철폐를 의지다 소위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할 때 스스로 찾아와 변호를 맡아주셨던 인연이 됐다"고 회고했다. 배정기 전 진안군애향운동본부장은 회고사에서 "전북대 법정대 59학번 동기인 산민은 대입 때 4대의 경쟁에서 수석 합격했다. 1957년 사법고시 합격자 17명에 들어 전북대 출신 제1호 법률가가 됐다"며 "진안에 오면 같은 고향의 대학동기라며 꼭 연락했다"고 말했다. 여러 내빈들의 추모사와 회고사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단상에 오른 한승헌 선생 부인 김송자 여사는 유가족 인사말에서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성대히 추모식을 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산민 한승헌 선생 추모 사진전이 진안문화의 집 1층 전시실에서 오는 4월 26(금)일까지 8일간 전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임실군(군수 심민)과 임실군장애인연합회(회장 손주완)가 지난 19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을 표어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설상회 임실 부군수를 비롯해,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과 군의회 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자 및 기관사회단체장 그리고 장애인시설이용자, 재가장애인 및 그 가족, 군민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식전 행사로 임실필동농악단 사물놀이와 사과나무춤단의 풍성한 공연이 있었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군수 표창(3명) 및 장애인연합회 감사·공로패, 장학금 전달을 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우석대 박지용 학생, 아시아대학축구대회 대표 선발

우석대학교 축구부 박지용(체육학과 3년) 학생이 2024 아시아대학축구대회 대표로 선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말레이시아·대만·베트남·필리핀·태국 등 아시아 7개국 대학팀이 모여 자웅을 겨룬다. 박지용 학생은 지난 2월 통영에서 열린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중앙 수비수로 맹활약을 펼쳐 대표 선수로 발탁됐다. /장은성 기자

장애인의날 기념 '제4회 장애인문화예술콘서트' 성료



제4회 장애인문화예술콘서트'가 지난 20일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지부와 전주시장장애인복지협회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회가 주관하는 '장애인문화예술콘서트'는 장애인의 삶을 기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주시와 행복드림복지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이수정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회장, 이영재 전주시장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최주만·박선진·이남숙 전주시의원, 각 단체

임원 이사 30여명과 장애인 참가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개회식 공로 표창 수여식, 행운권 추첨으로 구성됐다. 식전공연에서는 개나리 품바공연, 이호기의 대금연주, 김복순의 북춤, 가수 한솜이씨의 무대로 꾸며졌으며, 김재현·정도현·송희숙·강수진·정순임·이수정·구재영씨가 무대에 올라 행사장 분위기를 흥겹게 했다. 함께 진행된 공로 표창 수여식에서 김시우 행복드림복지협회 후원회장과 최주만 전주시의원이 공로패를 수여받았으며, 권다현씨와 김숙희씨가 전주시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재훈기자

고창군 혼승영농조합법인,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대상 수상



고창군 부안면 혼승영농조합법인이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를 열고, 고품질 가루쌀 생산과 쌀 수급안정에 기여한 우수 생산단지 5개소를 선발했다. 전국의 가루쌀 생산단지 38개소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10개 생산단지가 경합을 벌여 혼승영농조합법인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혼승영농조합법인'은 주요 농작업별 공동경영일지를 상세히 작성해 참여 농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 자체 공동 농작업단을 구성·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배 메뉴얼을 준수하고 공동방제 등에 노력해 2023년 공공비축 수매 시 특등 비율이 38%로 전체 평균인 23.2%에 비해 14.8%가 높아 농가소득 향상 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김재국 혼승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가루쌀 첫 재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에는 2배 면적인 100ha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고품질 가루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루쌀 육성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소멸 대응 간담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연구회(대표 고성환)가 지난 19일 인구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연구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읍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연구회는 고성환 대표의원과의 김승범, 오명재,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의원이 참여하며, 11월까지 정읍시 인구소멸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 활동의 주요 계획과 최신 동향 공유 등 연구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읍=김태환 기자



남원 주천면, 군산시체육회 방문 춘향제 등 홍보

남원시 주천면(면장 김재하)은 지난 19일 군산시 체육회를 방문해 춘향제와 고흥시렁기부제 및 국제드름제전 with 로보트 등 시정 홍보를 추진했다. 먼저 지난 2022년 제59회 전라북도민체전 자매결연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군산시 체육회를 방문하여 춘향제를 중심으로 홍보하여 행사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고흥시렁기부제 및 남원시 담배 품목을 안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김재하 주천면장은 "제59회 도민체전 자매결연 체육회인 군산시 체육회는 물론 군산시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